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자 고령 농업인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확대 추진

기사입력시간 : 2025/03/31 [14:23:00]

박정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시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QR코드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가세요!

추가로



✓ 농업인 요건

-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 지원내용

-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 ②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약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 지급상한 면적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 (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자세한 가입조건,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문의 ☎

1577-7770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공사는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으로,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자로 한정된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매도' 방식으로, 이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매도 조건부 임대'로, 이 방식에서는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되어, 가입자의 개인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파주=박정호 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Gyeonggi Regional Headquarters Paju Branch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a new 'Farmland Transfer Retirement Direct Payment Project' starting in 2024 to support the stable retirement life of elderly farmers.

This project is a system in which elderly farmers receive a certain amount of subsidy every month when they transfer their farmland to young farmers or successor farmers.

The corporation plans to invest approximately 9.7 billion won this year and will accept applications until the budget runs out. Applicants are farmers aged 65 to 84 and have been engaged in agricultural management for more than 10 years.

Applicable farmland is farmland in an agricultural promotion area owned by the applicant for more than 3 years or farmland that has been reorganized, and up to 4ha can be applied for.

There are two ways to apply. The first is the 'sale' method, in which case, in addition to the farmland purchase price, 500,000 won per hectare per month (6 million won per year) can be supported for up to 10 years.

The second is 'Conditional Sale Lease', in which 400,000 won per month (4.8 million won per year) per hectare is supported for up to 10 years.

Starting this year, a 'Last-minute Payment Method' has also been newly introduced, allowing subscribers to choose the subsidy payment method based on their personal financial situation.

We hope that this project will ensure stable income for elderly farmers.[Paju = Reporter Park Jeong-ho]

원본 기사 보기:[고양 브레이크뉴스](#)